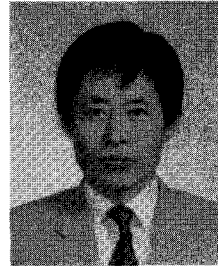


#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



한우개발부  
차장 이종현

## 1. 머리말

최근 들어 『위기의 한우산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우산업 붕괴 초읽기! 등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전국 어느곳을 돌아다녀도 큰일났다는 소리뿐이다.

그 이유는 번식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사안에는 살찐 암소들이 실룩실룩 거린다.

암소비육이 성행해서 한우산업이 다 무너진다고 하면서 왜? 암소번식은 안 시키고 비육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한결같다. 내일 미래(2001년)가 개방인데 소값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심지어 어떤 사육농가는 송아지를 사다가 20개월 동안을 불안해서 어떻게 비육하고 앉아있느냐?

시장에서 암소를 구입하여 한 6개월 잘 먹이면 돈도 벌고 회전율도 빠르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할 수가 있느냐는 대답이다.

생산농가도 그렇고 어지간한 정육점에서는 암소고기만 판다고 한다. 실제로 그 많은 암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정육점 앞에는 『한우암소전문판매』라는 간판이 붙어 있으니 생산농가나 정육점이나 암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나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3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는 현재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을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가입을 하여도 별로 효과가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향후에 결정될 일이겠지만 한우사육농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안정기준가격을 제시하려면 지금의 70만원보다 20-30만원 정도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으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애간장만 태우다가는 정말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사태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한우는 역사 이래 오천여 년을 우리와 함께 살아 온 문화유산이라지만 현재의 위치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몇가지 내용을 검토하여 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정말로 없는 것일까? 향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2. 한우 사육두수 현황

최근 2~3년동안 한우 사육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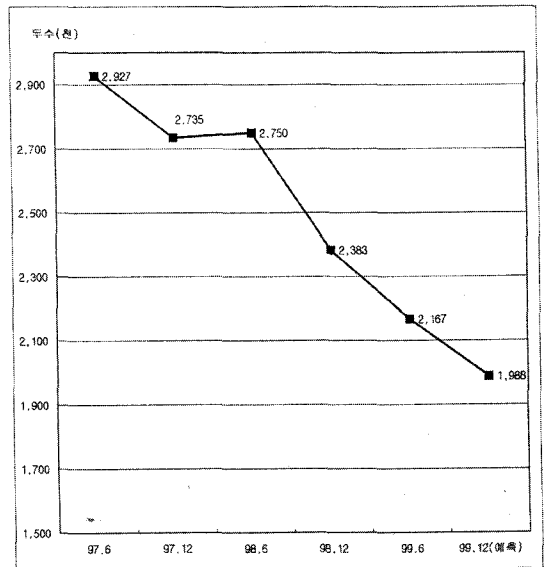
2001년의 수입자유화에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육불안심리 이지만 그 이전에도 광우병, 0-157 등에 의한 소가격의 하락은 한우사육농가의 불안을 고조시키더니 97년말부터는 IMF 라는 한 파까지 몰아치면서 급기야는 사육의욕을 포기하게 하는 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한우사육농가수는 97년 6월에 501천호 이었으나 99년 6월에는 399천호로 불과 2년동안에 102천호나 줄어들었다.

사육두수 또한 97년 6월에 2,927천두에서 99년 6월에는 2,167천두로 750천두나 감소하였다(97년대 비-74%) <표1>

수입자유화가 되기도 전에 우리의 한우사육기반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소비육에 의한 송아지생산감소와 이의 연쇄적 현상에 의한 한우사육기반의 붕괴를 염려하는 것이다.

<표1> 한(육)우 마리수 변동추세



년. 월	97.6	97.12	98.6	98.12	99.6	99.12(예측)
사육두수(천)	2,927	2,735	2,750	2,383	2,167	1,988
비율(%)	100	93.4	93.9	81.4	74.0	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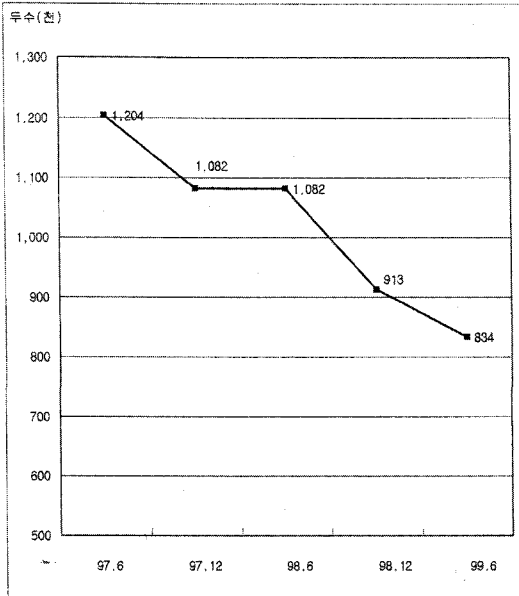
\* 자료 : 축협중앙회(축산관측)

전체 사육두수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200만두 이하로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2세이상의 번식 가능한 암소는 전체두수의 감소폭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표2>

<표2>를 보면 2세이상의 암소사육두수는 2년전 보다 370천두가 감소하여 99년6월현재 834천두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비육 하여 도축할 암소도 구하기가 힘들 판이다.

<표1>과 <표2>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사육두수는 99년6월현재 74.0%로 감소하였는데 2세이상의 암소는 그보다도 많은 69.2%로 감소하여 전체두수보다 2세이상의 암소가 더 많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2세이상 암소 사육두수



년. 월	97.6	97.12	98.6	98.12	99.6
사육두수(천)	1,204	1,082	1,082	913	834
비율(%)	100	89.9	89.9	75.8	69.2

\* 자료 : 축협중앙회(축산관측)

### 3. 암소도축과 송아지 가격

최근 들어 송아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검토한 이유와 같이 최근 2~3년동안 암소의 도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으니 송아지 생산은 줄어들고 비육을 마치고 출하한 축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비육용 송아지를 입식하여야 하나 송아지 생산량의 절대두수가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원리를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 주지 못하게되고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우 암소도축의 문제는 숫자의 감소만이 문제는 아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잘 개량된 좋은 암소가 먼저 도축장에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이다

한우개량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심은 이러한 이유에서 근심이 또하나 늘어간다.

85년~86년도에 소값하락시에도 공식적으로 30여만두의 암소를 수매하였는데 이때에도 비육되기 좋은 자질과 체형이 좋은 잘 개량된 소들이 수매에 앞장을 섰고 이번의 소값하락에서도 좋은 소들이 먼저 도축장으로 들어섰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등록우등 젊고 좋은 암소들이 소값하락시에 먼저 수난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2산의 젊은 소를 구입하여 비육을 해야 고기 값도 잘 받고 잘 비육 되니까 수익도 더많게 되지만 자질이 불량한 소나 늙은 소는 비육을 하여도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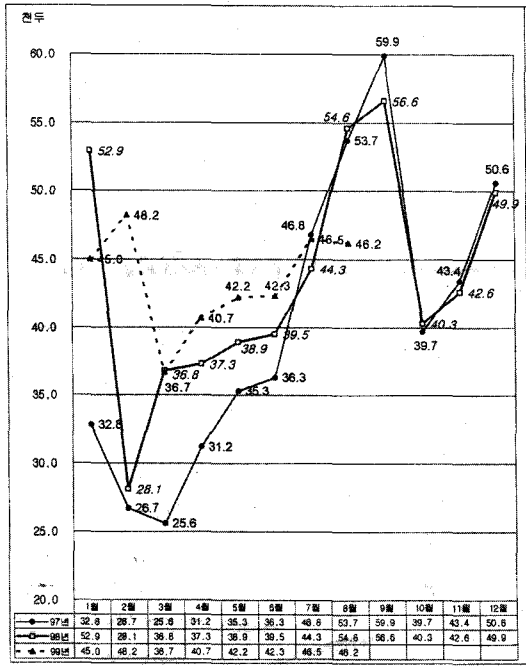
꽃도 예쁜꽃이 사람 손을 먼저 타고, 소도 좋은 소가 먼저 죽고.....

따라서, 최근의 암소도축현황은 우려하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전체도축두수의 52.3%, 98년도에 49.8%, 99년6월말까지는 55.1%로 한우전체 도축두수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우가격이 좋을 때인 96년도에는 암소도축비율이 39.8%, 95년도에는 40.4% 정도로 암소도축비율이 40%내외인 점으로 생각한다면 평년의 도축율에 비하여 10~15%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표3>

금년도 7월~8월에는 암소도축두수가 다소 주춤하였는데 워낙 많은 두수가 없어져서 소가 없거나 추석성수기를 맞추어 출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3〉 연도별 암소 도축두수 현황



\* 자료 : 축협중앙회(농림부)

한편 송아지 생산을 예측할 수 있는 한우정액혈통확인 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에 총 1,319,650 스트로우 이었는데 9월말까지는 1,023,000 스트로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금년(99년)9월말까지는 이보다도 적은 847,610 스트로우의 정액을 확인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82.8%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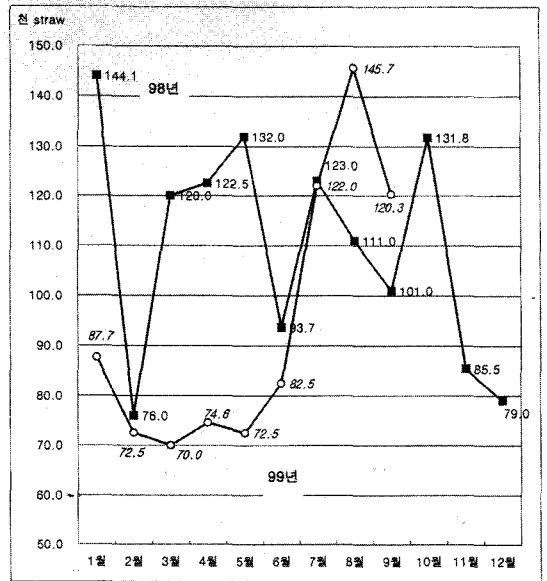
다만 최근 7월~8월에는 정액혈통확인숫자가 상승하고 있으나 금년 전반기(1-6월)에 실적이 부진하여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적은 량의 정액이 한우 사육농가에 공급될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는 내년(2000년)의 송아지 생산두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표4〉

이는 당연히 송아지의 부족과 송아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표4〉 한우 정액혈통확인 현황

1998~1999.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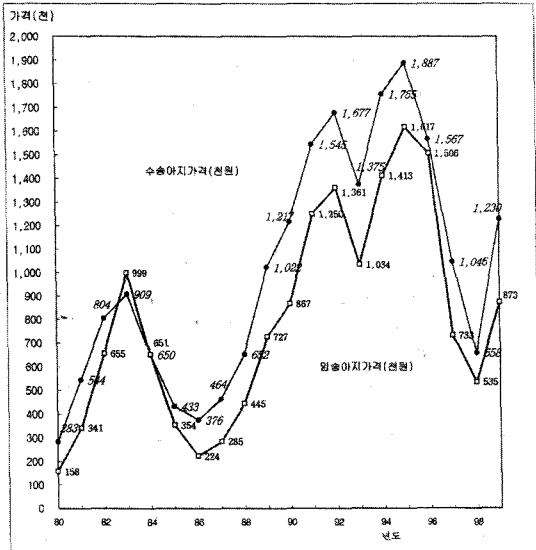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8	144.1	76.0	120.0	122.5	132.0	93.7	123.0	111.0	101.0	131.8	85.5	79.0	1,319,650.0
99	87.7	72.5	70.0	74.6	72.5	82.5	122.0	145.7	120.3	123.0	111.0	101.0	847,610.0

\* 자료 : 한국중축개량협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동안 하락한 송아지 가격은 금년을 기점으로 강한 상승곡선이 그려지고 있다.

〈표5〉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 번 올라간 한우가격은 1~2년안에 다시 내려가게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이 되며 지금부터 암소의 번식에 힘을 기울인다고 하여도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송아지생산의 증가는 어렵지 않나 예상된다.

〈표5〉 연도별 송아지 가격의 추이



년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10.4
수송아지(천원)	809	854	999	909	1,050	464	224	632	727	1,211	1,887	1,543	1,677	1,705	1,887	1,567	1,046	1,229	873	
암송아지(천원)	330	341	655	651	433	354	285	445	445	1,002	1,354	1,361	1,375	1,413	1,817	1,506	733	535	535	

\* 자료 : 한국축육개량협회

#### 4. 우리의 향후 대응방안

번식기반 확보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까지 많은 농가에서는 1~2산의 젊은 암소를 구입하여 비육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오고 있었다.

물론, 앞날도 불안하고 수익도 좋으니까 이제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송아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번식을 하려는 양축가도 늘어날 것이며 암소를 구입하여 비육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기왕에 번식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반드시 중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혈통이 확립되는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양축농가에서는 요즘에도 걱정이 많다.

그 이유는 같은 우사에서 똑같은 사료로 같은 기간을 길렀는데 비육출하시에 돈을 더벌고 못버는 소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량단지의 혈통등록우만 골라서 사다가 비육하는 농가도 많고 개량단지와 연계하여 비육용 밀소를 구입하려는 농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다.

그러나 비육용 송아지가 전국 어디서나 마구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개량단지 지역에서도 비육용 송아지를 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곳도 있다.

앞으로는 지역의 축산업협동조합, 시군청, 한우협회, 영농조합 등 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지역단위별로 번식농가를 육성하고 지역에 알맞는 종모우로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을 유도하고 여기서 태어난 송아지중 수송아지는 해당지역의 비육농가에게 공급하는 지역별 자급자족제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번식농가(5두미만)를 무시하지 말고 이들이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250개 개량단지와 농가에서는 한우개량의 밑거름이 되는 고등등록우와 혈통등록우를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해 나아가야 한다.

만일 이대로 번식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우개량기반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 고급육 생산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높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암소를 비육해서 만드는 고급육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모두 거세해서 비육 한다면 비례적으로 암소가 적게 도축될 가능성과 함께 진정한 고급육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암소는 최소한 5~6산을 한 후에 비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일정기간을 비육하여 출하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봄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거나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한다.

요즘은 전국 어느곳을 돌아다녀 보아도 앞으로 송아지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스스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잘 개량된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비육밑소로 활용한다면 소득향상도 기대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지역에서는 한우사육농가 스스로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축협과 정읍지역의 한우사육농가들이 힘을 합쳐서 번식암소 2,000여두를 등록시키고 있다.

인공수정용 정액은 육질고급화를 위한 종모우를 선택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수송아지는 정읍지역의 비육농가에서 평균 시세보다 약10만원을 더 주고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에서 스스로 우량한우 번식기반을 조성하면서 비육용 송아지도 손쉽게 구입코자 하는 것이다.

암송아지가 태어나도 걱정 할 것이 없다. 암송아지는 혈통등록을 시켜서 다시 번식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등록을 실시하는 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량농가에 편입이 되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송아지 생산장려금도 받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꿩먹고 알도 먹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업은 한우사육농가의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만이 우러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 5. 정부의 자세

축산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망설이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이미 계획된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한우사육농가들이 안심하고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번식을 하는 한우사육농가가 암소를 비육하는 농가의 소득수준과 비슷해야만 한우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격안정제도는 단순히 송아지 생산비뿐만 아니라 경영비, 노력비 등을 참고해서 안정기준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모처럼만에 정부를 믿고 따르는 보기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주 만들어내는 한우종합발전대책이나 한우산업백서 등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종합발전대책의 변동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한우의 개량기반, 번식기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며 한우사육농가에 도움이 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장관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40여만 명의 한우사육농가를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로 최근 일본에서도 화우의 소규모 번식농가의 이탈에 의하여 번식기반이나 개량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여 펼쳐지는 정책을 몇가지만 사례로 들어본다.

당장은 예산관계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우리의 여건과 현실에 알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지방정부와 생산자조직 등에서도 한우사육기반의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될지도 모른다.

물론,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시, 군보다도 자금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경제적 자금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속적인 한우특성화사업 등을 실시한다면 중앙조직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한우사육농가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보조나 지원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연구하고 노력하여 생산비를 줄이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같은 소를 기르는 사람이라도 그 소득의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경쟁력을 살려야만 하겠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양축가는 좋은 혈통의 암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단지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획교배, 정부지원, 개량사업에서 생기는 이득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6. 일본의 번식기반 유지정책

소규모 번식농가의 붕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1991년도에 쇠고기 수입자유화가 실시된 일본에서도 걱정거리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소규모 사육농가가 번식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 가. 중핵 육용우 번식경영 육성대책 사업

#### - 사업의 목적

최근 소규모 사양농가를 중심으로 이농템포가 빨라 육용우 번식자원의 유지, 확대가 어렵고 육용우 번식경영은 생산주기가 길기 때문에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림과 함께 규모확대를 위한 많은 초기경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규모확대 의욕이 있어도 이의 실현에 이르지 못하는 실태에 있다.

이 때문에 규모확대에 의욕적인 경영체의 번식암소 도입이나 자가보유를 한층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10두이상의 경영체를 조속히 만들어 육용우 자원의 확대를 도모한다.

#### - 사업의 내용

번식빈우를 사육하는 생산자가 일정사양 규모의 증두계획(3년간)에 기초한 번식암소를 늘리는 경우에 증두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교부한다.

3년후의 목표두수	증두 1두당 장려금 단가
- 5~9두 규모	6만엔(한화 약60만원)
- 10두이상 규모	8만엔(한화 약80만원)
- 그중, 30두를 넘는 증두분	6만엔(한화 약60만원)

- 사업실시주체: (사)도 도부현 육용자우기금  
안정협회 등

나. 송아지생산 확대장려사업

- 사업목적

육전용종 번식경영에 있어서 송아지생산 확대의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번식암소두수의 유지확대와 송아지가격의 하락시에 번식암소 사양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 발동기준과 교부액

송아지가격이 아래와 같이 발동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육전용종 번식암소의 두수 증두자와 유지자에 대하여 판매 또는 자가보유한 송아지 1두당 아래와 같이 장려금을 교부한다.

(흑모화우에 대해서는 송아지가격이 발동기준 가격을 하회한 정도에 대하여 확대는 발동기준과의 차액상당액을, 유지는 그3/4 상당액을 교부한다)

품 종	발 동 기 준	단 가(송아지 1두당)	
		증두자(확대장려금)	유지자(생산장려금)
흑 모 화 종	35만엔 이하일 경우	10천엔(약10만원)	7천엔
	34만엔 "	20천엔(약20만원)	15천엔
	33만엔 "	30천엔(약30만원)	22천엔
	32만엔 "	40천엔(약40만원)	30천엔
	31만엔 "	46천엔(46만원)	34천엔
갈 모 화 종	32만엔 이하일 경우	25천엔(약25만원)	
	29 "		16천엔(약16만원)
기 타 육 전 용 종	23만엔 이하일 경우	19천엔(약19만원)	
	21,4 "		12천엔(약12만원)

주:1. 1천엔=1만원으로 환산하였음.

2. 송아지가격은 육용자우 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정시장 의 평균매매가격(4분기마다)

- 사업주체: 도, 도부현 육용자우 가격안정기금  
협회

다. 육용우 생산조직 육성추진

- 취지

최근 소규모 번식경영의 이탈 및 핵심적인 번식경영의 육성이 늦어짐에 따라 육전용종 번식자원의 감소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번식자원의 감소경향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번식경영의 규모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중심적인 번식경영의 육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의 내용

▶송아지의 공동육성, 사료기반의 확보, 시설의 정비, 사료 및 비료생산이용의 공동화 등 지역의 조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내 정비 및 계획책정.

▶지역내의 조직화를 보급, 정착하기 위한 사업 효과의 파악, 홍보지 작성.

▶송아지 공동육성, 사료 및 비료생산이용의 공동화가 정착되기까지 초도적 경 비분담의 경감.

- 사업주체: 영농집단, 농협 등

- 보조율: 1/2, 1/3, 4/10

라. 육용우 개량증식 대책사업중 육용우개량 효율향상 추진



- 취지

육용우 생산성향상과 수입육에 대한 품질면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량종모우의 생산. 이용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후대검정방식 변경에 의한 검정두수의 증가, 유전적능력(육종가)평가의추진, 수정란이식기술을 활용한 형태검정방법 도입 등에 의한 육종조직의 개선을 통하여 우량한 육용종모우의 생산, 이용에 활용하는 육종개량추진의 강화를 도모.

- 사업의 내용

육용우개량시설정비사업

▶우량종모우의 생산, 이용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

육용우 개량효율향상 추진사업

▶육용우의 육종개량체제를 강화하고 우량육용우의 생산이용을 위하여 새로운

육종조직의 실시

- 후대검정(종모우의 자식을 비육하여 발육과 육질을 조사)을 위하여 검정장점 정(도, 도부현 축산시험장) 현장검정(비육농가)비용방식을 도입

- 수정란이식 기술을 활용한 형태검정(종모우의 형제를 비육하여 육질을 간접적으로 조사)도입.

- 유전적능력(육종가)평가체제의 정비 등

▶육종소재가 되는 우량암소의 확보

▶육종가평가에 기초한 계획교배의 추진

- 사업실시주체: 도, 도부현, (사)가축개량사업단

- 보조율 1/2이내 10/10이내

마. 우량 육용우자원 유효활용 촉진사업

- 사업목적

1991년 4월부터 쇠고기수입 할당제도의 폐지, 그 후 수입관세율의 경감 등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영세한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하

여 경영의욕의 감퇴에 의한 번식암소의 사양포기에서 육용우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염려된다.

한편, 개량용 종축은 다수의 영세번식농가에 의하여 사양되고 있으며 이들 영세한 번식농가의 경영이탈이 계속되어 종래 육용우의 육종소재로 되어있던 우량한 번식암소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또한 수소에 있어서도 검정시설의 제약에서 특정의 형질에 특징을 가진 암소를 활용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 때문에 송아지가격의 하락 시에 육용우자원의 유지, 확보대책 및 육종소재로서의 암소집단 및 특징 있는 능력을 보유한 수소의 조직적, 안정적인 확보, 활용대책을 실시하여 육용우생산기반안정 및 개량증식의 자료가 된다.

- 사업내용

▶번식암소보유 추진대책

송아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번식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암송아지(암송아지도입형) 및 사양포기한 성빈우(성빈우도입형)를 규모확대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구입비의 일부를 조성한다.

▶우량암소 확보방법

전국협의회나 현의 협의회에서 정해진 기준을 채운 번식암소를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구입비 일부를 조성하고 계획교배 및 능력조사를 한다.

▶우량화우 정액 안정확보

산육능력검정의 대상으로된 당대검정종료우에 대하여 그 정액을 비축한 후 비육조사를 하고 지육성이 우량한 소에 대해서는 그 정액을 활용한다.

아울러 가축개량사업단은 특징 있는 형질을 보유한 번식암소를 구입하여 종모우생산에 이용한다.

▶가축개량증식 추진

전국협의회, 현 협의회, 지육정보 등의 분석, 우량종우 선정방침 등의 책정에 의한 육용우 육종자원의 확보, 활용에 대한 보급계몽을 한다.

- 사업실시주체: 전국연합회(가축도입주체는 농협, 농협연합회, 공사 등)

바. 육용우 생산조직 육성대책

- 취지

최근 소규모 번식경영의 이탈 및 핵심적인 번식경영육성이 늦어짐에 따라 육전용종 번식자원의 감소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번식농가의 감소경향을 방지하고 국내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번식경영확대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지원하여 중심적인 번식경영의 육성을 위한다.

- 사업내용

▶지역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동일 육성방식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공동 육성시설의 정비

▶사양규모를 확대하는 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논, 밭 등에 사료기반의 간단한 정비

▶사료 및 구비의 생산이용 공동화에 필요한 기계나 시설의 정비

- 사업시설주체: 영농집단, 농협 등

- 보조율: 1/2, 1/3, 4/10

## 7. 맺음말

한우개량사업과 관련되는 등록과 심사를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면서 항상 바라는 마음은 한우를 기르는 양축가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소를 사랑하면서 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없어서 잘 개량된

좋은 암소가 시장으로 팔려나아가고 행하니 텅빈 우사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은 소를 키우는 양축가나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같지 않을까?

이제 IMF의 거센 한파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동안 힘들여 잘 개량해 놓았던 소들이 어디론가 팔려나가 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아득한 옛날 고구려, 백제시대부터 일본으로 건너갔던 한우는 세계 제1의 육질을 자랑하고 가깝게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팔려간 소들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잘 개량되었으며 이 소들은 또다시 미국대륙으로 건너가서『아메리카 화우』라는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를 휩쓸고 있다.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은 우리의 손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다른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소로 잘 개량하였으며 자랑을 하고 다닌다.

우리도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잘 개량하고 좋은 소로 만드는데 정부, 학계, 단체, 우리양축가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하겠다.

그리하여 수입개방이 되어도 외국소와 몇몇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소로 만들고 우리의 소득도 높이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우고기를 공급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지 않는가?

한우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생각해 보자.

앞으로도 이 땅에 영원히 살아 남아서 우리의 후손에도 자랑스럽게 물려줄 한우로 만들었으면 더 이상 바랄 일이 없겠다. ■